

# 텃밭서 대권 행보 속도내는 박근혜

## 2박3일 대구행 ... 신년교례회 등 10여개 행사 소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2011년 새해 초 대권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전 대표는 3일 정치적 '텃밭'인 대구를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방문하며 이른바 '집토끼'를 잡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지난해 12월20일 사회보장기본법 공청회와 27일 대구모 '싱크탱크' 발족에 이은 대권행보의 제3탄 격으로 자신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을 확고히 해두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표의 기대 만큼 대구·경북 지역민들도 뜨겁게 환영해 줘 대선 분위기가 조기에 과열되지 않을까 하

는 우려마저 낳았다. 그는 이날 낮 인터볼고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 신년교례회에서 "최근 안보불안도 커지고 세계적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 발전과 나의 발전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면서 "이를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함께 가고 대구·경북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이 함께 가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서상기·김태환·주성영·정해결·이인기·조원진·이해봉·김옥이·이한성 의원과 박 전 대표의 입으로 통하는 이정현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물론 주요 영·배영식·이철우·이명규·김광림 의원 등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도 모습을 보였고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도 참석하는 등 대구·경북지역 유력 인사 1500여명이 참석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지역 기관장과 머물며 10여개의 행사를 소화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특히 대구에서 2박을 하는 것은 지난해 지방선거 지원유세차 13일간 머문 것을 제외하고는 처음 있는 일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일에도 한나라당 여성정치 아카데미 신년교례회를 시작으로 대구시 한나라당 의원과 오찬, 대구시 노인회 신년행사 참석, 대구시청 및 경북도청 방문 등 오전부터 저녁까지 빽빽한 일정을 보낼 예정이다. 그는 방문 3일째인 5일에도 대구시 여성단체연합회 주최 신년교례회를 포함해 3~4개 행사에 잇따라 참석한다. 박 전 대표가 이틀이나 한 지역에 머물며 10여개의 행사를 소화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특히 대구에서 2박을 하는 것은 지난해 지방선거 지원유세차 13일간 머문 것을 제외하고는 처음 있는 일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3일 대구 인터볼고호텔에서 열린 2011 대구경북신년교례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진을 들어 건배제에 응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부터 100일간 '더 낮게 더 가까이 희망대장정'에 돌입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3일 경기도 부천시를 방문해 결식아동 무상급식 문제 등을 주제로 부천시청에서 열린 시민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개헌 불 지피나

안상수-이회창 "새해엔 논의돼야" 민주 부정적... 본격화 될지 미지수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3일 새해에 개헌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에 따라 정치권 내 개헌논의가 확산할지 주목된다. 양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해 인사를 겸해 가진 회동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이회창 대표를 통해 전했다. 이날 안상수 대표는 "새해에는 개헌논의가 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재량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극

심한 만큼 권력집중을 막아야 한다"며 "또한 권력구조 문제는 다수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개헌) 논의는 해야 하지만, 국민의 뜻에 따라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권력구조, 기본권 문제 등 정치 선진화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회창 대표는 '개헌논의 착수'에 대해 동의하면서 "21세기형 국가구조를 담는 방향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두 대표의 합의가 개헌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지는 미지수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개헌에 부정적일 뿐 아니라 현재 여야 관계가 극도로 경색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헌 논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정치권의 의견이 갈리고 이에 따라 정치권이 혼미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민 목소리 통해 변화 필요성 느껴야"

## 박희태 의장 강조

박희태 국회의장은 3일 "올해는 '변화의 해'가 돼야 한다"면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 변화의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 방송실에서 신묘년 새해를 맞아 국회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등 국회 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시무식 행사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내 조직, 내 직무,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열

심히 고민해야 한다"면서 "변화하는 사람에게만 반드시 감사의 표시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는 변화의 해를 보겠다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신년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신년사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모범을 보인 직원들에게 대통령 표창과 국회의장 표창, 모범 공무원상을 수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후배 장병들과 연평도서 1일 초병 체험

## 장병완 등 해병 출신 여야 의원 6명

민주당 장병완 의원 등 해병대 출신 여야 의원 6명이 2~3일 1박2일간 일정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이 이뤄진 연평도를 찾아 피해실태를 점검하고 주민과 해병대 장병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을 단장으로, 한나라당 홍사덕·강석호·이화수, 민주당 신학용·장병완 의원, 가수 김흥국씨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애초 지난해 12월26일 연평도를 찾을 예정이었으나 기상 악화로 배편이 없어 일주일 연기했으며, 2일 오후 헬기 편으로 연평도를 찾았다. 이들은 연평도 부대와 면사무소로부터 피해 현황을 보고받고 민가 피해 현황 등을 둘러보면서 대피소 시설과 통신시설의 보완·개선 필요성 등에 공감했다. 특히 해병대 영내에서 1박 할 해병대 출신 의원들은 2일 밤 10~12시 두 시간 동안 후배 장병과 함께 초병 근무를 했다. 장 의원은 "현장을 살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참혹하다"며 "1780명의 주민 중 230여명만이 연평도에 있



한나라당 정병국(맨 오른쪽) 의원과 민주당 장병완(왼쪽 두번째) 의원 등 해병대 출신 여야 의원 6명이 2일 연평도를 찾아 초병 체험을 하고 있다. <정병국 의원실 제공>

는 만큼 조속한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섬 전체가 정상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대피소 19곳에 TV와 위성방송 중계시설을 제공했고, 후배 장병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234개 시군구 민생탐방 나선 손학규

## 희망대장정 돌입... 사랑방 좌담회 등 통해 '국민 속으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3일 100일간의 '희망대장정'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28일 1단계 전국 순회 투쟁을 마무리하고 한 숨 돌린 뒤 '더 낮게, 더 가까이'를 모토로 곧바로 2단계 투쟁에 시동을 건 것이다. 대규모 장외집회 중심의 1단계 투쟁을 통해 투자적 면모를 강조했다면 2단계 투쟁은 전국 234개 시·군·구 바닥을 훑으며 민심 탐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정권 규탄과 함께 정책적 대안 제

시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수권정당의 면모를 부각시키겠다는 포석이다. 전국순회투쟁 당시 천막에서 노숙했던 손 대표는 2단계 투쟁 기간에는 마을회관 등에서 숙식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손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타운을 밟, 사랑방 좌담회, 봉사활동, 민생탐방을 통해 국민에게 가까이, 깊이 다가갈 것"이라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믿음을 갖고 국민 속에서 내일을 찾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의 2단계 투쟁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외의 손 대표가 취할 수 있는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온 몸으로 투쟁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손 대표의 2단계 투쟁은 민주당이 처한 현실을 온 몸으로 헤쳐 나가는 것"이라며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손 대표의 장외 투쟁을 폄하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선 연발 장외 투쟁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구제적 전략 및 대안 없이 다시 장외 행보에 나선다는 폄자 없

은 시선도 있다. 또한, 장외 투쟁을 명분으로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전국 조지를 다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비주류의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과연 예산안 날치기 처리 후 이뤄놓은 것이 무엇인가"라며 "국민이 민주당을 '양치기 정당'으로 평가할까 두렵다. 전략적으로 인행이 일치하는 데어 전략과 정책과 비전을 논해야 할 시점"이라고 날을 세웠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복구이

전복스팀찜

전복문어찜

##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의데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 할터전국 택배 가능 합니다.
-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일곡지구

연초제조창

롯데칠성

SK주유소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

50m

코카콜라

해태제과

금강아파트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부동산의 모든것!! 이제 복돼지부동산에서 함께 하세요

## 돈 되는 경매 · 급 매 · A급상가

### 투/자/상/담

저희 회사는 20여년의 전문 경매정보 포털을 운영하는업체로서 신문 광고에 나와있지 않는 큰돈이 되는 좋은 물건들을 잘 알고있습니다. 적은금액부터 ~ 풀고루 있으니 상담 바랍니다. 컨설팅 비용은 아주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 경매 컨설팅 및 법률 상담

- 이용길실장 010-5678-2536
- 이나경 010-8609-1600

### 운암동 호프

호프 & 꼬치구이 전문점

50㎡ 보1500만원 월90만

최신인테리어

상권좋음!

매출최상!

대로변가 테이블 7개

대형테이블있음

시비권있음. 문의(조정가)

문의) 010-9005-2223

저희 회사는 신문광고 전단에 나와있지 않는 "아주 목 좋고 상가가 잘되는" 점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바로 전화주시면 저희가 찾아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비용도 적게 받고요.

● 각 지역 담당 ●

서 구 (김팀장) 368-0808

북 구 (임팀장) 376-1613 (지소장) 374-1612

남 구 (서팀장) 368-6677

광산구 (이팀장) 351-2281

복돼지 부동산 ☎ 364-8887